

## 세미나 토론문

### 11장 - 관계적 지리학

관계적 지리학은 강석영 선생님 발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을 고정적으로 보지 않고 여러 요소들이 맺는 관계 속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토론문에서 제시된 '서울 지하철 노선도(이하 노선도)'는 관계적 지리학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흥미로운 위상학적 지도이자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머독(Jonathan Murdoch)이 제시한 '관계적 공간'의 훌륭한 예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도는 강석영 선생님 토론문에 언급되어있는 "또 하나의 세계를 담은 데이터 지도"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노선도는 실제 거리를 '어느 정도' 반영한 왜곡지도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잠실역 간의 거리는 약 7~8km 정도인데 2호선으로 약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체감상 우리가 느끼는 이동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환승이 없어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노선도 상의 강남~잠실 구간 역시 짧게 그려져 있습니다(자로 잴 때 약 7.5cm입니다). 반대로 약 15~16km 정도의 거리를 가진 용산역~석촌역은 환승을 하고 4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체감상 이동시간이 길고 환승이 불편하다고 생각되어 노선도 상에서도 실제에 비해 길게 그려져 있습니다(자로 잴 때 약 22.5cm입니다). 이는 물리적 거리보다 '관계적 거리'에 초점을 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에도 노선도는 서울의 안과 밖을 이루는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트구조주의, 관계적 지리학에서는 장소를 매우 '관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을 GTX 등의 노선 확장으로 폭 넓은 생활권으로 인식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과 타 지역 간의 관계를 관계적 공간, 상대적 공간으로 규정,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12장 - 인간 너머의 지리학

한국에서도 서양 이론에 뒤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너머의 지리학'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창호&임은진(2022)은 「인간 너머 지리교육을 위한 방향 모색: 동물지리를 중심으로」에서 동물지리가 인간과 환경 관계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리 교육 과정의 도입을 찬성하고 더 나아가 연구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간 너머의 지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에스 노그래피 연구의 결과물로 Van Patter(2022)의 「Individual animal geographies」연구는 코요테의 개별 삶과 행동을 연구하고 인간 외의 종을 생태적, 사회 공간적, 정치 윤리적 영역 내의 '행위자'로 참여시키려고 노력해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 공간, 즉 다종 도시로의 재구축 논의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너머의 지리학 분야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주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지리학의 동물윤리관인 도덕적 평등

이론에서는 인간 우월주의를 비판하고,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터 싱어(1975)의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에서는 인간이 아닌 동물도 고통과 쾌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예일대 철학자 셰리 케이건은 '단일주의'로 지칭하는데, 그의 저서 『어떻게 동물을 해아릴 것인가』(2020)에서 그는 '동물 윤리 분야에서 단일주의는 옳지 않은 방법이고 윤리적으로 교착상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물을 동등한 도덕적 지위의 존재로 봤을 때 생기는 문제(복지와 관련된 사회 인프라, 인권 등)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층적 관점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주의할 점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데리다는 지성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데 가치 있는 구분선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동물들도 나름의 의사소통 수단이 있고 지성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주장하며 '지성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이 부족해 더불어 사는 사회 규범을 해치고 순서를 파괴한다면 공존의 대상이 아닌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 셰리가 제안한 계층적 관점을 도입해 도덕적 차이를 인정한 계층을 형성하고, 진송옥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주신 오토에스노그래피 등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동물의 이해가 더해진다면 더욱 발전된 동물지리학,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13장 - 자연 너머의 지리학

최경현 선생님의 토론문에서 제시된 바와 비슷하게 단어의 적절성 논란은 뒤로 하고, 인류세는 식민과 착취의 상징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캐서린 유소프의 저서 『10억 개 혹은 0개의 흑인 인류세(A Billion Black Anthropocenes or None)』(2018)에는 백인 지질학과 흑인/원주민의 환경적 책임 불평등 등의 내용을 다루며 인류세의 비판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문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아시아의 내용이 빠진 부분 역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아시아를 '주변화'하고 있습니다.

토론문에서 제시된 착취당한 아시아인, 식민지 국가 등이 겪은 서양의 환경 부담 전가는 최근에도 국제기후협상에서 드러나는 아젠다입니다. 선진국의 입장(주장)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탄소 한계(Carbon budget)와 배출 잠재력을 근거로 탄소를 제한하는 대신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역사적 책임과 발전 권리를 근거로 탄소 제한에 있어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싶어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모디 총리는 대부분의 국제 회의에서 "기후위기는 주로 선진국이 만든 문제"라며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진국이 감축을 제안한다면, 식민지 시절의 도돌이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입니다..)

따라서 최경현 선생님이 제시한 '다중심적 비판'으로 시작되는 불평등 구조의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배에 관해 불평등 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환경 정책이 의도는 좋으나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각국의 입장과 잘 어우러지게 수정할 수 있다

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